‘새우젓 명산지’ 신안 전장포항 복원

1980년대 파시로도 유명 … 옛 명성 되찾기 나서

10억 들여 토굴 정비 유통·판매·보관시설 건립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웬 눈물방울 이리 많은지/각이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가면서/반짝이는 반짝이는 우리나라 눈물 보았네…’

(곽재구 시 ‘전장포 아리랑’중)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항이 ‘전국 최대 새우젓 고장’의 옛 명성을 되찾게 됐다. 신안군은 22일 임자면 전장포항에서 ‘전장포 옛 명성 복원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군은 1980년대 전후 풍어기에 바다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인 ‘파시(波市)’로 유명했던 전장포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새우젓 판매, 유통 촉진 등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증대와 젓갈 판매기반 조성 등을 위해 국·군비 10억원을 들여 새우젓을 보관했던 토굴을 정비하고 유통, 판매시설과 냉장 보관시설 등을 건립했다.

수산물 판매장은 349㎡로 1층에는 판매시설 10곳, 2층은 주민복지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건립했고, 노후된 옛 위판장은 보수해 옛 모습 그대로 보존했다.

인근 산자락의 젓갈저장과 숙성을 위한 토굴 4곳(개소당 104m)도 정비해 볼거리와 체험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전시 홍보시설로 꾸몄고, 전장포 어민들의 애환과 설움이 담긴 ‘전장포 아리랑’ 시비(詩碑)도 세웠다.

전장포는 현재 230명(100여 가구)의 주민에 불과하지만, 1980년대 전후에는 주민수가 2천100여 명(250여 가구)에 달했으며 파시로 유명했다.

하지만 지난 1983년 3월 신안군수협 북부지소 전장포 위판소가 설치·운영됐으나 젓새우를 육지로 운반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1993년 7월 지도읍 송도위판장으로 변경됐다.

또 모래채취선이 무분별하게 임자도 부근에서 모래를 채취해 산란기 새우 서식처가 파괴되는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차츰 활력을 잃었다.

김인석(52·임자면 도찬리)새어민회장은 “이번 복원 사업과 함께 앞으로 신안 지도 점암과 임자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인다면 점차적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지역 연간 젓새우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1만2천t)의 85% 이상인 9천300t으로 22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순천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내 압축시설

특정 민간업체 위탁 물의

시의회 동의·공모 절차도 생략 말씽

순천시가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내 압축시설을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면서 시의회 동의 및 공모절차를 생략한 채 순천시 쓰레기처리 업무 대부분을 도맡아 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말썽이 일고 있다.

게다가 시설 내에서 2년 동안 일했던 계약직 근로자를 최근 해고시켜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숙련공 부족으로 시설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순천시 왕지동 생활쓰레기매립장은 당초 2005년까지 사용연한이었으나 주민 반대와 오락가락한 시 행정으로 새 매립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사용연한을 2012년으로 연장했다.

이를 위해 현 매립장 일부를 확장하고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 압축시설을 설치·운영해 왔다.

시는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압축시설을 완공, 2008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다 올해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수탁업체는 이미 A 업체로 내정돼 시는 조만간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민간위탁시 시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돼있는 조례를 무시한데다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별도의 공모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해 절차 위반의 지적을 받고 있다.

A 업체는 순천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는 물론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며 사실상 쓰레기처리 업무의 대부분을 도맡아왔는데 압축시설까지 계약을 앞두고 있어 특혜시비도 일고 있다.

또한 압축시설 설치 직후부터 일해오던 계약직근로자 6명의 기간이 만료되자 이들을 최근 해고시키고 1개월의 초단기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했지만 임시회 개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계약직근로자 해고에 대해 “매립장이 2102년까지 한시적 운영으로 계획돼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민간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면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진도군민 “고려중공업 살리자”

민자유치 1호 … 사회단체 등 본격 나서

군민공모주 발행 자금 조달 방안 추진

진도군민들이 ‘민자 유치 1호’인 고려중공업을 살리고자 발벗고 나섰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번영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13개 사회단체와 이장단협의회, 진도군 3개 농협(진도, 선진, 서진도)이 ‘고려중공업 살리기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위는 오는 29일 창립총회 이후 참여 단체별로 고려중공업 살리기 운동 플래카드를 제작해 게시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 행사장에서 전단 배부와 가두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군민 공모주 발행 등을 통해 어려운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공모주 발행은 법적인 사항 등을 검토한 후 추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려중공업은 ‘진도군 민자유치 1호’로 군내면 녹진리 223번지 일대 68만 5천643㎡에 사업비 2천100억원을 투입, 중대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건설되고 있다.

진도군은 고려중공업 연관사업으로 299억원을 투입해 조선소 입구까지 4차선 도로를 내고 있으며,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 조선 기자재업을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중공업은 현재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선박 조선업의 불황 등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추진위 김상헌 위원장은 “고려중공업이 정상 가동되면 3천500여 명의 고용 효과와 연관사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안전검사 미달 선박

목포항 입항 금지

오는 24일부터 선체 결함 등 안전검사 미달선박은 목포항 입항이 통제된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오는 23일 민·관 합동 결함선박 감시체제 구축, 운영’을 위한 도선사 등 해운, 항만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거쳐 안전검사 미달 선박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운영될 민관합동 결함선박 감시체제는 목포항에 입항하는 모든 외항 선박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결함 선박을 조기에 식별, 시정 조치하려는 것으로 목포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도선사, 목포항운노동조합, 항만 예선업체 등 관계기관, 업·단체로 구성됐다.

선박 및 항만의 현장 종사자들은 업무수행 중에 결함 선박을 발견하면 목포항만청에 즉각 신고해 결함사항을 점검, 바로잡도록 해야한다.

목포항만청 김삼열 청장은 “이 감시체계는 결함 선박의 조기 발견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종사자가 목포항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나주 영산나루 여수 달천마을

‘아름다운 마을’ 선정

“성큼 다가온 봄 향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농촌마을을 소개합니다”

나주시 공산면 영산나루마을과 여수시 소라면 달천마이 농촌진흥청 주관의 ‘아름다운 농촌마을’에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22일 봄을 맞이해 가족이나 연인이 봄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농촌마을은 나주시 공산면 영산나루마을과 여수시 소라면 달천마을을 비롯해 ▲경북 영덕군 달산면 복사꽃마을 ▲경기 파주시 교하읍 돌곶이마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벌리마을 등 5곳이다.

마을을 감싸 안으며 흐르는 영산강이 자랑인 영산나루마을은 4~5월에 경관작물로 재배하는 유채가 병아리를 닮은 샛노란 유채꽃을 피워낸다. 아늑한 마을 강변에서 유채꽃에 취할 수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인기 드라마였던 ‘주몽’ 촬영지 삼한지 테마파크가 위치해 가족 단위 나들이 코스로 적당하다.

/송기동기자 song@

보성군 단풍나무 심기 보성군 공무원과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최근 지역관문인 다향체육관 주변에 단풍나무 등 9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다. 보성군은 다음달 5일까지를 식수기간으로 정하고 7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보성군 제공〉

‘여수 굴’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

여수시가 지역 특산물인 굴(각굴)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굴(각굴)에 ‘여수굴’이란 이름표를 붙여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을 추진,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를 위한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에 따라 지리적 특산품으로 국제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제도이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홍합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굴(각굴)에 이어 지속적으로 여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바다에서 생산되는 굴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재래종의 맛을 유지, 맛이 좋다”며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상품을 고급화함으로써 차별성 부여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여수 굴’에 대한 상품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효성공인중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임야(농장.묘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당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빌딩 (임대용. 투자용)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사무실적합)
-매가 19억
-보증금 1억6천만 월8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중 재산리모델링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급매물 즉시 중개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부지구함
■위치장소 : 제한없음
■용 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확인 된 곳.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위 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매장면적 : 150-350평
■임대 및 매수가능.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가능
(주) 땅 심
TEL : 010-3616-8698